



# 『작게』, 『적게』, 『오래』 그리고 『녹색구매』



이 정 자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

☎ 02-717-9818 yeeam@chol.com

〈필자약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문학과 졸업
-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 졸업
- 동덕여대 대학원 여성학 박사과정 이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등 역임
- 현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친환경 경상품구매조달재단 이사장

약 2년 전에 경차를 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800 cc 차로 지금은 단종 된 지 오래인 중고 티코이다. 집에 쓰던 큰 차를 바꾼 것인데 마음이 우선 홀가분해졌다. 1980년에 소비자운동으로 출발하여 1996년에 녹색소비자운동으로 진화하면서 환경에 더 큰 방점을 찍어온 사람으로서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는데 우선 가벼운 차로 대체했다는 것이 그러했다. 기름 소비가 절반이상 줄어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잘

했다 싶다. 차를 바꾸니까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 ‘체면도 없이...’ ‘안전이 걱정돼...’ ‘멋있다...’ 마지막 멘트는 주로 환경운동 쪽이었다.

작년에 일본 갔을 때 작은 차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650cc의 작은 차도 많았고 경차에는 노란 변호판을 붙여 우대 관리하며, 시민들이 경차를 선호하도록 교통, 환경정책을 운영한다고 했다. 내가 마포구청에 갔을 때 확인한 것은 경차 주차 표시를 해놓은 공간은 딱 2대뿐이었다. 마침 구청장을 만난 김에 경차 주차 공간을 더 늘려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후문은 듣지 못하였다.

## 생활속 환경보전 실천방법

자원을 아끼고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첫째는 작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 적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상수와 하수의 경계가 어디냐 하는 질문에 그 대답은 ‘수도꼭지’라고 한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순간 하수화함으로 상수를 적게 쓰는 것이 그만큼 하수를 적게 만드는 것이다. 하수 처리의 양이 많으면 소요 전기량, 화학약품,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 등에 의한 온실가스의 발생이 커진다. 식수도 허실 없이 쓰지만 나는 세숫물도 두 손이 잠길 정도만 받아서 씻는다. 그리고 목욕도 마구 자주하는 편이 아니고 삼림욕·운동 등 몸에 땀이 났을 때에만 목욕을 하는데 샤워를 자주하는 습관이 좋은 목욕문화로 생각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음식 포장물의 경우도 적은 양으로 소분화하면 필요한 만큼 양을

더해 사면 될 뿐 처음부터 많아서 버려야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생활에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양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대중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저감시킨다고 생각하여 나는 선호한다. 기왕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에 한발 들여놓는 것이다. 승용차나 택시를 탐으로써 쓰게 되는 에너지는 순 증가분인 반면에 대중교통은 내가 타나 안타나 운행되는 교통으로서 내가 이용하면 그만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거리가 연간 2만 킬로미터로 자동차 천국이라는 미국보다 많고 일본의 2배에나 이르는데 자가용을 절반만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대체 이용만 해도 온실가스를 1.5톤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목욕탕을 내가 찾는 것도 이런 생각에 더하는 것이다. 1차 소비자보다는 2차 소비자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네 번째는 오래 쓰는 것이 또 한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피복 값으로 1년에 거의 10만원도 안 쓰는 것 같다. 40여년 계속된 사회활동으로 장롱 속에 옷들이 꽤 되고 10여년 이상 된 옷들도 아직 입을 만하다. 더러는 고쳐서 오래 입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해한다. 가장 최근의 정장은 2002년에 두 벌 산 것이 다이다. 오래 된 옷들을 입지만 그래도 남보다 옷맵시가 떨어지거나 후줄근하다는 말은 듣지 않는 것 같다. 모든 물건을 오래 쓴다는 것은 내가 아껴 쓰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바꾸어 쓰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는 것을 다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비자 측에서 본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의 방법들이다. 그러나 공급측에서 올바르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 환경문제 해결의 요체-친환경 상품의 구매

공급 정책에서 정부는 1992년에 제품의 설계·생

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환경마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오고 있었고 2005년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정부기관 등 공공구매에서 친환경상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친환경상품은 같은 용도의 일반상품에 비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 상품을 말한다. 한국표준 품질기준을 넘어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도, 에너지·물 등 자원의 소비량 등에서의 환경성이 일반제품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형광등의 예를 들자면 환경마크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같은 밝기에서 소비전력이 약 20% 적고, 수은 함유량은 1/3 이하이며, 유리 무게도 20% 정도 가벼워 에너지·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의 요체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에 있다. 설계, 소비재, 생산 공정,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이 있다면 오늘날 같이 지구온난화가 걱정되는 환경에서는 소비자도 녹색상품을 우선 구매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녹색구매를 주요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다.

남극의 세종기지를 위성촬영해 보니 얼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한겨울인데도 한봄을 만난 것같이 따뜻하고 기온은 예년보다 한 달을 앞서가는 기이한 현상에 사람들은 이제 기후가 미쳤다고 걱정을 많이 하며 에너지이며 오염원인 휘발유를 배급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성도 느끼고 있다.

교통 혼잡으로 1년에 소모되는 경제적 손실이 4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년 수출 순이익이 4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피땀으로 1년에 이루어야 하는 성과를 교통 혼잡으로 다 날리는 셈이다.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교통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될 수 있다는 실례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나라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환경적 책임감을 발현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시민사회와 더불어 하고 각종 세금을 교통, 수도, 에너지, 교통 혼잡, 온실가스 등에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해야 되는 교통 기반 사업에서는 도로정책에서 벗어나 철도 정책 쪽으로 역점을 돌리는 것도 일본의 예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환경상품으로 경쟁을 해나아가야 하는 기업을 위해서 친환경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업의 녹색화를 위한 회의를 오는 6월 방콕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각 나라들이 경제효율성을 대신할 환경효율성을 위해 국가의 새 파라다임을 만들며 급하게 나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야자나무가 크는 날이 오지 않게 하고 추운 겨울에 삼한 사온을 맞보는 정상 기후를 찾기 위해 환경효율성의 관점에서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예방과 자원보전을 위해서는 소량생산, 소량소비, 소량폐기형의 순환형 경제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with the address bar containing 'http://www.인네넷 환경정보'. The page content is organized into two columns:

- Left Column:**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지원시스템 :** <http://tri.nier.go.kr>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및 사업장에서 연간 환경(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 등) 중으로 배출되거나,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관련 자료를 업체 및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PRTR 및 TRI 등의 이름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저감기술 등 최신의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http://tmdl.nier.go.kr>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
- Right Column:**
  - 리제는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 도입입니다. 관련법령, 외국사례, 운영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REACH 대응센터 :** <http://reach.me.go.kr>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EU 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입니다. 사전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본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EU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국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절차, REACH소식, 전문가상담, REACH대응전략 등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